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기업·공공기관과 상생 협력



전남광주지역 동반성장협약서 협약식 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한전·기아 등 8개 기관 협의체 출범...

에너지·기술협력·식품 판로 3개 과제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기업·공공기관과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판로 확대까지 지원하는 동반성장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기아, 우아한형제들, CJ제일제당과 지난 20일 '전남광주지역 동반성장협의체' 출범식과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협의체는 8개 기관이 보유한 기술·인프라·구매력·유통망 등을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참여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중점산업 경쟁력 강화, 공동과제 발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모델 확산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체 출범과 함께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기술협력, 지역 식품기업 판로 확대 등 3개 공

동과제도 추진한다. 먼저 '전남광주 에너지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젝트'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3개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전과 한전KDN, 한전KPS,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신학융합원 등이 참여해 초기 사업화부터 기술·제품 실증, 판로 확대까지 연계 지원한다.

'전남광주 홈커밍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지역 중소기업 30여 개사를 대상으로 기술협력과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반성장위원회가 현장투어와 구매·기술 상담을 하고, 기술이전과 공동 연구개발(R&D), 실증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전남광주 로컬푸드 판로확대 프로젝트'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중소 식품제조기업 4~5개사를 발굴해 전국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CJ제일제당의 유통·마케팅 역량을 활용해 CJ더마켓 입점과 우수상품 특

별전 등을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은 강명수 산업경제부시장과 장인화 동반성장위원장의 인사말, 협의체 구성 경과보고, 3개 공동과제 발표, 상생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강명수 부시장은 "지역기업이 좋은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실증 기회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가진 기술과 인프라, 구매력과 유통망을 지역기업과 제대로 연결해 지역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기업의 성장이 다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3개 협력과제별 참여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지역 현안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신규 협력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현대차·기아, 상상한 서비스 현실로...

차량용 앱 공모전 개최

현대자동차·기아가 대학(원)생과 일반 개발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차량용 앱 개발 공모전을 개최하고 21일(수)부터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모전은 차량 데이터를 활

용한 다양한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차량용 앱 개발로 이어져 고객에게 보다 풍요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8월 실시한 사내 해커톤에 이어 참가 대상을 외부

로 확대해 대학(원)생과 일반 개발자, 스타트업 등 다양한 개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참가자는 개인 또는 최대 5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으며,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s://appdevchallenge.auto-hmg.i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인카(In-Car)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라이프 케어,

안전 운전, 패밀리·동승자 케어 등 차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전반이다.

참가자들은 현대차그룹의 차량용 앱 개발 플랫폼 '플레오스 플레이그라운드(Pleas Playground)'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SDK, Software Development Kit)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실제 차

량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앱을 직접 개발하게 된다.

서비스 기획안을 제출해 공모전에 지원할 수 있으며, 11월 서류 심사를 통과한 팀은 12월 앱 시연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팀으로 선정된다.

현대차·기아는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및 특별상 등 총 10개 수상팀을 선정해 총 5,100만 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팀은 전시 콘텐츠 제작 및

고도화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열리는 개발자 관련 행사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최종 시연 및 공식 시상식에 참여한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외부 개발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차량용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차량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인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자와 함께 차량용 앱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